

[나의 해방일지 1회 미정 독백 씬]

#회사

[회사 사람들] 미정이? 예쁜데 매력이 없달까

(미정은 회사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생각한다)

#집

(창희와 미정의 대화)

[미정] 서울에 살았으면 우리 달랐어?

[창희] 달랐어

[미정] 난 어디서나 똑같았을 것 같은데. 어디 사나 이랬을 것 같아.

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긴긴 시간 이렇게 보내다가는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당신을 생각해 낸 거예요.

언젠가는 만나게 될 당신 적어도 당신한테 난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겠죠 누구인지도 모르는 당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지지도 않는 당신.

당신.

누구일까요? (쓸쓸하고 포기한 듯하지만 독기가 생겨날 듯한 차갑고 매 마른 눈빛)